

있어서 ~~눈에~~ <sup>눈에</sup> ~~가~~ <sup>가</sup> ~~는~~ <sup>는</sup> ~~눈을~~ <sup>눈을</sup> 피고 교회 갈 준비를 했다, 영혼이 나간 채  
나는 할아버지 차를 타고 정계동에 있는 교회에 도착했다. 교회는  
마침 뒤. 친구들과 노기로 약독한 장소에 갔고 ~~정~~ 열심히 놀기 시작했다.  
언제 PC방을 가서 저리있게 놀은 듯했다.

나는 30레벨을 찍고 버치리사를 보았는데 4승 6패해서 브론즈가  
되었다. 브론즈는 엄청 낮은 단계이다. 우연히 3명만 같이 했지만  
정호랑은 0승 2패 칸반이랑은 2승 2패 뉴진이랑은 1승 2패 라호자 1승 0패  
하고 난 브론즈가 된 것이다. 매우 나는 게임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게임은 이제 많이 재미없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게임과는 먼 친구로만 살기로 했다.